

한국 인명 로마자 표기법 연구:^{*,**} 음절단위 국어의 영자표기법

양 병 선
(전주대학교)

Yang, Byeong-seon. 2000. A Study of How to Write Korean Personal Names in Romanization: Syllable-based Englishization. *Journal of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8(3), 281-302.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to write Korean personal names with a syllable-based Korean Romanization system based on English writing and pronunciation. In this paper, I propose that we should use the term 'Englishization' instead of Romanization, which means Korean personal names to be written with the English alphabet, which is regarded as a technical, international, and global language. That is, how to write Korean personal names with Romanization is a phonetic translation from Korean writing system to English writing system. Also, I propose Englishization of 311 syllables used generally with Korean personal names. (Jeonju University)

1. 서론

필자는 양병선(1997)에서 한 국가의 언어정책은 순수한 언어학적 이론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인 제 현상에 의해 결정되며 이 사회언어학적인 요인을 무시한 언어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는 Kennedy (1984:1)와 Rubin(1984:4-5)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지적하고 국어의 로마자

* 본 논문은 2000년 전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본 논문은 2000년 1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시안의 전주시 공청회와 대한언어학회 2000년 봄 학술발표대회 및 현대문법학회 하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주신 국립국어연구원의 김세중부장과 모의발음부호법에 입각한 영어발음기준로마자표기법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신 김복문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본 연구의 출발은, 문화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연구원의 로마자 개정시안을 접하고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참석하면서 시작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의 출발은 김복문교수의 영어발음기준로마자 표기법으로 부터이다. 학술대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강석근, 양선기교수님과 초고에 대해 꼼꼼한 comment를 해주신 김혜숙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표기법도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개정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영어의 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하는 한글을 영어로 음자번역하는 “(한)국어의 영자 표기법”, 즉 한글을 영어알파벳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것이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양병선 2000).¹⁾ 하지만 1984년 당시 문교부에 의해 고시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개정한 문화관광부 산하단체인 국립국어연구원에 의해 금년 7월 7일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에 의해 개정, 확정, 고시된,²⁾ 문화관광부의 새로운 로마자 표기법은 이러한 제안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문교부(1959)와 한글학회안(1984)을 따름으로써 기존 표기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안은 일반인이 인명(상호명, 기관명 포함)에 따르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3장 7항)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하기”로(제3장 4항) 하였다. 또한 김혜숙(2000)에서는 기존의 로마자표기법이 한글의 인명표기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고는 인명 및 회사명, 기관명 등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인명표기 로마자표기법 만큼은 21세기의 글로벌시대의 무한 경쟁과 국제화, 인터넷 시대의 의사전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어인 영어를 기준으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한글 인명표기에 적합한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을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문화관광부(2000)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인명표기 영자표기법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3장에서는 로마자 사용 언어 중에서 세계어와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위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인명 및 회사명을 표기하는 로마자 표기법은 현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영어의 발음과 철자를 기준으로 하는 ‘(한)국어의 영자표기법’이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의 관점과, 사회적 제 현상, 그리고 이의 타당성을 제시하고, 영어철자와 발음의 규칙성과 특징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영자표기법이어야 한다는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는 발음부호법에 입각한 영어발음기준로마자표기법을 주장한 김복문(1996a, b)이다. 본고와 김복문(1996a, b)의 구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양병선(2001) 참조.

2.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1948년 정부수립이래 1959년과 1984년에 각각 개정되었으며 이번에 새로 개정된 문화관광부안은 네 번째 표기법이다. 개정을 시도한 것(1979 문교부주관, 1997년 문관부 주관)까지 합하면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거나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는 결국 백 ‘Baeg, Bak, Paek’, 윤 ‘Yoon, Youn, Yun’, 정 ‘Chung, Jeong, Joung, Jung’, 임 ‘Im, Lim, Limb, Rim’, 이 ‘Lee, Rhee, Rie, Yi’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언어가 비 로마자권 언어인 일본어(1954년 내각고시)나 중국어(1958년 한어병음표기안 1982년 ISO 채택)와는 사뭇 대조적이다(양병선 2001 참조).

에 대해 알아본다. 제4장에서는 필자 고안 영어의 발음과 철자를 기준으로 한 음절단위 국어의 영자표기법을 제안한다. 제5장은 국어의 인명표기 로마자 표기법의 정착에 관한 제안을 함으로써 결론에 가름한다.

2. 문관부(2000)의 특징 및 문제점: 인명표기에 부적합

문화관광부에서 로마자표기법을 개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문교부(1984)안은 어깨점(˙)과 반달표(˘)와 같은 특수부호가 있어 일반국민들과 외국인들이 사용하기를 매우 꺼려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새로운 표기법은 어깨점과 반달표와 같은 특수부호를 없애 ‘어, 으’는 ø, ü에서 eo, eu로 바꾸었고 ‘ㄱ, ㅌ, ㅋ, ㆁ’은 k’, t’, p’, ch’에서 k, t, p, ch로 바꾸었다. 하지만 새로운 표기법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영자표기법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제대로 반영하여 못하였다. 이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씨에 적합한 가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다. 예로서 일반인들은 강 Kang(Gang), 구 Koo(Gu), 국 Kook(Guk), 김 Kim(Gim), 문 Moon(Mun) 박 Park(Bak), 서 Suh(Seo), 성 Sung(Seong), 신 Shin(Sin), 심 Shim(Sim), 안 Ahn(An), 엄 Um/Uhm (Eom), 오 Oh(O), 우 Woo(U), 윤 Yoon(Yun), 이 Lee/Rhee/Yi/Rhie(I)로 표기하고 있으나 괄호안에 표기된 바와 같이 새로운 표기법은 전혀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또 다시 새로운 표기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즉 문화관광부의 새로운 로마자표기법은 행정 구역명, 자연 및 교통 관련 지명, 명소 및 문화재, 그리고 역사 지명 등 주로 지명과 문화재에만 국한하여 사용될 것이며 일반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인명, 기관명, 회사명 등은 다른 표기법에 의해 표기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혼란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하루빨리 인명표기 영자표기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목적이다.

3. 로마자표기법의 기준언어로서의 영어

3.1 21세기의 세계어, 과학, 기술언어로서의 영어

영어는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 기술언어이며 동시에 21세기의 글로벌시대의 세계어와 국제공통어이며 인터넷 언어이다. U. S. News and World Report(1985년 2월 18일 간)에 의하면 국제비즈니스의 80%, 컴퓨터 저장 데이터는

90%가 영어로 된 정보이며, Crystal (1997: 4-5)의 조사 (1995년 기준)에 의하면 최소한 78개 국가에서 영어를 모국어나 제2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인구의 1/4(12억 내지 15억)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으며 세계 약 100여 개의 국가에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고 있다. 이는 세계인구의 거의 90%가 영어를 이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이다. Grimes (1996)의 연구에 의하면 (1995년 기준), 현재 사용되고 있는 6,703개의 세계 언어 중 모국어 사용자수에 의한 세계 100대 언어 중 1위는 중국어로서 12개 지역 및 국가에서 885,000,000명이, 2위는 스페인어로서 28개 지역 및 국가에서 332,000,000명이, 영어는 83개 지역 및 국가에서 322,000,000명이 모국어나 제1공용어로서 사용하고 있다.³⁾ 여기에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사용하는 인구와 국가를 포함한다면 영어는 명실공히 21세기의 세계어이며 동시에 국제공통어임이 분명하다. 또한 올해 1월 23일자 LA Times에 의하면 컴퓨터 웹사이트 중 75%와 상업적인 목적의 인터넷 서버의 95%가 (1990년 후반 기준) 기본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숫자는 427,000,000로서 726,000,000를 사용하는 북경어를 이어 세계 두 번 째임을 밝히고 있다 (양병선 2001 참조). 이는 같은 로마자를 사용하는 언어인 스페인어(3위: 266,000,000)와 포르투갈어 (6위: 165,000,000), 독일어 (10위: 121,000,000)를 합한 수와 비슷한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세계언어로서의 영어의 위치는 문화적 자존심이 강하고 언어국수주의로 까지 불리는 프랑스 마저 국민들에게 영어교육에 나서고, 21세기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영어공용화를 주창한 일본 오부치총리의 자문기구인 '21세기 일본구상'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3.2 제1외국어로서의 영어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 내에서도 이제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터 영어를 정규교과목으로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 이는 한국인이 맨 처음에 접하는 로마자로 쓰여진 외국어는 영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인이 자신의

3.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는 언어인 Portuguese (6위)는 170,000,000명이, GERMAN, STANDARD(12위)은 98,000,000명이며, French (13위)는 72,000,000명, Polish (24위)는 44,000,000명이며, 로마자를 사용키 시작한 Italian (27위)은 37,000,000명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적은 수가 사용하고 있는 Italian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표기법은 일반인들이 따르지 않을 것은 자명한 것이다. 참고로 한국어의 경우는 (12위) 75,000,000명이 모국어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이며 영자를 기준으로 하여 표기한다. 이러한 영어 교육현실을 직시하여 국어의 인명표기는 국어의 영자표기법이어야 한다. 또한, 영어의 공용화에 대한 찬성이 65%, 반대가 28%라는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2000년 2월 28일자 조선일보)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국제어로서의 영어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경쟁시대의 생존의 수단으로 영어를 제2공용어로 채택하자는 일부의 극단적인 주장(복거일: 「지구제국」 참조)은 논의로 치더라도 필수적으로 영문표기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한글의 인명 로마자표기법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한글을 영어 알파벳을 이용하여 표기하는 법> 즉 <(한)국어의 영자표기법> 이어야만 한다.⁴⁾

3.3 영어 철자와 발음의 규칙성

한글 인명 로마자 표기법을 영자발음과 철자 기준으로 하는 국어의 영자표기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대다수의 반론은 영어의 철자와 발음과의 무원칙성에 기인한다. 예로써 영어의 경우 '우'의 표기는 *to, too, two, through, threw, clue, shoe*로 표기되며, a의 경우는 *dame [ei], dad [æ], father [a:], call [ɔ:], village [i], many [e]*의 경우에서처럼 다양하게 발음이 된다. 따라서 영어의 철자와 발음 기준 로마자 표기법은 혼란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Katamba (1994:122-138)는 '비록 약간의 비규칙적인 점이 있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는 음소적이며 영어의 철자와 발음간에 규칙성이 없다는 주장은 *though, through, enough, thigh, this, writ, rite, right*와 같은 아주 적은 수의 예외적인 현상만을 보고 간주한 잘못된 인식임'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영어 철자의 규칙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Crystal (1988: 69-70)에 의하면 '1970년

4. 이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언어의 주체의식과 (신경구 1989)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우리가 한글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기준을 영어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의 주체성이 침해받지는 않는다. <한글의 영자표기법>은 21세기와 같은 무한 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나 컴퓨터, 인터넷 검색엔진과 같은 도구를 선택할 시 성능이 좋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값이 싼 물건을 팔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선택의 문제이며 이 선택의 주체는 한국인이어야 하며 선택은 사회적인 제 현상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오히려, 이태리어의 모음을 기준으로 삼은 일본어 표기법을 근간하여 '아, 에, 이, 우, 오'를 'a, e, i, u, o'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간주한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은 일본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언어의 주체의식이 결여된 일제식민시대의 잔재물이며 지난 50여년간에 걸쳐 로마자표기법이 정착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김복문 1996a).

대 초에 실시한 미국의 컴퓨터 분석 조사에 의하면 영어 단어 17,000 단어를 분석한 결과 84% 이상이 규칙적인 것이었고 단지 약 3%만이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 철자와 발음과의 규칙성은 Scragg (1973), Sampson (1985), Stubbs (1980), Vachek (1973)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영어의 철자와 발음과의 무원칙성을 들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영자발음과 철자 기준으로 하는 국어의 영자표기법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3.4 영어철자 및 발음의 특징과 국어의 영자표기시 고려사항

영어단어의 철자와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국어를 표기 시 다음과 같은 영어와 한글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어의 모음의 규칙성은 주로 Katamba (1994:131-136)에서 인용한 것이다.

첫째, 로마자는 모음이 5개이지만 영어의 모음은 20여 개이며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성이 있다. 따라서 모음자가 21개나 되는 국어의 모음 표기는 라틴어(이탈리아어)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영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Norman Conquest (1066)이후에 프랑스어가 영어에 들어오면서 cwic(u)와 같은 단어에서 쓰이던 cw가 quick에서처럼 qu로 바뀌었으며, m, v, n자 앞에 나오는 u자를 프랑스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이런 글자를 프랑스인들은 o자로 대체하였다. 이렇게 하여 변한 철자는 son, love, come과 woman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국어의 로마자 표기의 경우 -n 앞 모음이 o(경우에 따라 a 포함)인 경우, h와 같은 묵음을 삽입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셋째, 영어는 강세에 의하여 문장의 운율이 결정되는 언어인 강세박자언어(stress-timed language)이다.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매 음절에 stress가 부여되는 음절박자언어(syllable-timed language)이다. 따라서, 영어 모음의 발음은 stress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발음이 달라진다. 즉 stress를 지닌 경우에만 제 음가를 지니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schwa /ə/로 약화된다. 그러므로 영어의 발음 및 철자를 고려 할 시 1음절어만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는 국어의 글자가 음절단위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하는 것이다.

넷째, 'a'의 경우 'w'가 'a'의 앞뒤에 오는 경우 이 'a'는 /ɔ:/로 발음되며(예: pawn, spawn, dawn, walk, swat), r, l앞에서 /ɑ:/로 발음되며(예: part, calm, palm) 기타 위치에서는 모두 /æ/로 발음된다.⁵⁾ 따라서 국어의 '애'/æ/는 기본적으로 a로 표기하며 '아'/ɑ:/는 기본적으로 ar로 표기한다.⁶⁾

다섯째, 많은 영어의 단어의 경우 어말의 e는 묵음이며 (예: come) 이러한 어말의 묵음 -e는 앞에 나오는 모음이 장모음이거나 (예: lute, rude, scene) 이중모음임을 표시하는 (예: nice, rose, fate) 특수 철자법상의 기능이 있다. 따라서 -e로 끝나는 1음절어 영어의 경우 모음의 발음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발음임을 고려하여야 한다.⁷⁾ 또한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원칙에 벗어난 표기나 영어에 없는 음운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이러한 어말 -e의 특징을 살려 -e를 첨가함으로써 표기한다 (예: 개음절의 '애'의 표기의 경우 'ae'로, 영어에 없는 음운인 '으'나 '외'의 표기는 'eu', 'oe'로 표기).

여섯째, 중세영어에서는 현재 이탈리아나 스페인어처럼 장모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음 위에 짧은 줄 (macron)을 사용하였다가 후에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같은 모음을 두 번 사용함으로써 장모음을 표시하였다. 국어의 경우는 모음으로 끝나거나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사용빈도가 많은 반면⁸⁾ 영어의 경우 모음으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단어보다는 자음으로 끝나거나 시작하는 단어의 수가 훨씬 많다.⁹⁾ 또한 모음으로 끝나거나 1음절의 단어의 경우 원래의 음가와는 다르게 발음된다.¹⁰⁾ (예: be [bi:], do [du:/ du], go [gou], he

5. 영국영어의 경우 /s/나 /f/와 같은 fricative sound 앞에서도 (예: past, cast) /ɑ:/로 발음된다.

6. 모음 뒤에 오는 /r/(post-vocalic /r/)은 영국영어에서는 발음이 되지 않으나 미국영어에서는 발음을 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이 둘의 발음인식에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모음 '아'의 기본 표기는 'ar'로 하고 경우에 따라 'aa'나 'ah'를 허용한다(§ 4.2 참조).

7. 이와 같이 -e로 끝나는 단어의 모음의 발음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어발음과 철자간에 불규칙성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모음이 20여 개나 되는 영어발음을 5개뿐인 로마자로 표기하기 위한 당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ape, ate, bate, bare, bide, bike, bone, braze, bribe, bugle, butte, cage, cake, came, cane, care, case, cave, chase, chose, close, ove, code, coke, cone, cote, crime, cue, cure, date, dale, daze, dice, die, dime, dive, dome, dole, dope, dose, dove, dune, face, false, faze, fine, fume, fuze, gave, gibe, haste, hate, plume, use 등 많다.

8. 김홍규, 강범모(1997)의 한글사용빈도 조사에 의하면 종성으로 사용되는 28자음 중에서 종성이 없이 사용되는 빈도수가 전체 음절의 54.011%이며, ㄴ(15.080%), ㄹ(8.809%), ㄱ(4.759%), ㅋ(2.808%) 순이며, 어두자음으로 사용되는 19자음 중 ㅇ이 20.266%로서 사용빈도가 가장 많으며, ㄱ(15.969%), ㅅ(10.297%), ㅈ(10.068%), ㄷ(7.451%), ㅎ(7.255%)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

9.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 과정의 기본 어휘로 제시된 800단어중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총 95단어이며 (a- 35개, e- 21개, i- 12개, o- 19개, u- 8개), 어말의 -e 음이 묵음으로 처리되는 단어를 제외하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총 23개이다 (예: a, be, coffee, do, go, he, hi, I, into, no, sea, she, so, tea, tomato, too, to, tree, we, you, zero, zoo).

[hi:], hi [hai], I [ai], so [sou], to [tu:], we [wi:]). 따라서 받침이 없이 모음으로만 끝나는 음절의 경우 기본 원칙과는 달리 같은 모음을 두 번 사용하거나 (예: ‘아’는 ‘aa’로 ‘이’는 ‘ee’로 표기), 묵음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 -h를 첨부하여 영어의 원래의 음가를 지니도록 한다 (예: ‘에’는 ‘eh’로, ‘예’는 ‘yeh’로 표기). 이는 외자의 표기를 가능한 한 없애 주는 장점이 있다.

4. 필자제안 음절단위 (한)국어의 영자표기법

4.1 한국어의 영자표기법의 기본 원칙

-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영자로 표기한다.¹¹⁾
- (2) 국어의 영자표기는 1음절 1기호의 원칙에 따라 표기한다.¹²⁾
- (3) 국어의 영자표기는 소리나는 대로 적되 (전사법)¹³⁾ 음절을 벗어난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음절단위 표음주의).¹⁴⁾

10. 이름과 상호명을 제외한 고유 영어의 경우, i, u, v로 끝나지 않으며 i로 끝나는 경우는 -y로 교체되며 (예: pity, nutty, naughty) u나 v로 끝나는 단어는 -묵음 -e를 첨가한다 (예: true, blue, glue, shove, live, glove). 하지만 외래어의 경우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예: okapi, ski, yeti, kiwi, tutu, gnu, guru, emu). 따라서, i, u, v로 끝나는 단어는 외래어나 이름 등의 고유명사이다.

11. 영어 알파벳에서는 특수부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자 이외는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문관부 2000; 제1장 2항) 표기의 기본 원칙이 필요 없다.

12. 이는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채택한 하나의 자모를 하나의 영자로 표기하는 1음운 1기호의 원칙 대신 하나의 글자를 하나의 기호로 표기하는 것으로 자음의 경우 받침과 초성의 경우를 달리 표기한 문관부 (2000) 안처럼 자음을 위치에 따라 달리 표기할 수 있기 위한 것이며 ‘ㅅ’의 경우 모음 ‘이’ 앞에서 구개음화가 되기 때문에 s/sh로 표기하기 위함이다 (§4.3참조)

13.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에는 한글의 실제 음에 일치하여 표기하는 음성표기방법(phonetic transcription)과 철자에 충실하도록 한 음소표기방법(phonemic transcription)으로 구별되며, 음성기호를 이용하여 말소리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음성표기법, 음운단위로 표기하는 음운표기법, 글자 형태 중심의 형태표기법으로 구별되고, 문자를 쓰인 내용을 참고하되 실제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전사법(transcription) 혹은 표음주의, 본래의 철자에 따라 1대1로 대응시키는 전자법(transliteration) 혹은 정자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익 1981 참조). Yale System, 문교부 (1959)는 정자법을 따랐으며 MR system과 문교부 (1984)는 전자법을 따랐고, 문관부(2000)은 원칙적으로는 전자법을 따랐으나 한글복원을 전제로 하는 학술연구와 같은 특수분야에서는 전자법을 허용하였다 (제3장 8항).

14. 이것은 국어의 최대 음절구조는 (C)V(C)임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부록2에 표기한 바와 같이 성명에서 사용되는 글자에는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나타나는 경우

- (4) 국어의 영자표기는 음절단위 영어 발음 및 철자에 의해 표기하며 가장 근접한 음운을 기준으로 한다.¹⁵⁾(영어발음기준 모의발음부호법).¹⁶⁾
- (5) 국어의 영자표기는 음절의 형태에 따라 달리 표기할 수 있으며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허용한다.¹⁷⁾
- (6) 국어의 영자표기는 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따른다. 다만 의미상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는 혼용을 허용하며 언어미학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외 글자는 가능한 한 지양한다.¹⁸⁾ (언어 주체성 및 언어미학성).

는 없다는 것과 음절별 빈도 수 조사에 의하면(김홍규, 강범모 1997:155-161) 사용빈도 500위 내에 드는 음절 중에 받침이 두 개의 자음인 경우는 극소수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또한 음절 이상의 단위에서는 음성 및 음운변화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영자표기에서 국어로의 환원에 대한 문제를 극소화함으로써 전사법과 전자법의 장점만을 취한 것이다.

15. 한글과 영어의 음운체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완벽한 1대1 대응은 불가능함을 많은 연구가 시인하였다 (안호삼 1957:295, 신경구 1989:493, 도형수 1992:22-23) 이는 결국 지난날의 로마자표기법을 자주 바꾼 이유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국어의 영자표기는 한국어와 영어의 음운중 최근접음의 영어의 발음 및 철자를 기준으로 하며 영어발음에는 없는 음 (예: 으, 외, ㄱ, ㅃ, ㅌ)은 국어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되 §3.4에서 언급한 영어의 기본 발음 및 철자법을 활용하여 표기한다. 일종의 음성번역인 국어의 영자표기의 목표는 동일 한 것 (sameness)이 아니라 동가성 (equivalence)이나 유사성 (similarity)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6. 영어발음기준 모의발음부호법(Pseudophonetic method)은 “발음부호를 대신하는 로마자로서 타국어의 발음을 유도하는 방법을 두고 하는 말로서 영,미 등 여러 나라에서 국제발음부호를 모르는 일반인 독자를 상대로 외국어의 어떤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일반 방식”(김복문 1996a:12)으로 김복문(1996a, b)에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의 기본 원칙으로 사용하였다.

17. 세계의 문자체계는 크게 logograph, syllabary, 그리고 alphabet으로 나뉘며 중국어나 아라비아 숫자는 logographic 문자체계이며, 일본어, Cherokee 인디언어는 syllabaries, 영어나 한국어는 같은 alphabetic 문자체계이다. 하지만 한국어는 영어와 달리 글자 한자가 한 음절을 표시하는 점에서 영어와 같은 로마자를 근간으로 하는 언어와는 사뭇 다르다. 따라서 한국어를 영자로 표기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음절 경계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해 국어식으로 음절사이를 띄어쓰는 경우가 있거나 (i) 또는 음절을 대문자로 시작토록 하는 경우도 있다 (ii).

i) Yang Byong Seon, Jeon Ju, Tae Jon

ii) HanSe InGuHoi (한세연구회)

하지만 (i)의 경우는 한글표기를 완전한 음절문자체계로 바꾸어 버리는 문제를 야기하며 (ii)의 경우는 잦은 shift key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따라서, 한글의 음절구조에 따라 (예: ‘아’는 ‘ah’, ‘가’는 ‘gaa’, ‘각’은 ‘gark’으로 표기하거나 ‘우’는 ‘woo’, 국 ‘gook’로 표기; §4.2 참조) 달리 표기함으로써 음절경계를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와 영어의 음절체계가 달라 발음 상의 혼동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붙임줄을 허용한다.

(7) 국어의 영자표기시 가능한 한 철자 수가 적은 표기를 한다 (경제성).¹⁹⁾

4.2 영어철자 및 발음기준 모음표기

한글 표준어의 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의 단모음과 ‘ㅘ ㅙ ㅚ ㅜㅛ ㅜㅝ ㅞ ㅟ ㅠ ㅡ ㅢ’의 11개의 이중모음으로 총 21개로 이루어졌으며 10개의 단모음중 ‘ㅓ, ㅕ’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이희승, 안병희 1994: 216). 영어와는 달리 한글은 표준발음의 장단의 대립은 있으나 일괄된 규정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고(이희승, 안병희 1994:216), 한글의 모음의 장, 단의 대립은 주로 개음절(open syllable)과 종성이 비음인 경우에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영어의 장단으로 인식되는 긴장과 이완모음의 대립은 개음절과 폐음절(closed syllable)을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이승환, 안신승 1998:230). 따라서 개음절과 폐음절의 모음표기를 구별하여 표기하고 폐음절의 종성이 ‘ㄴ’과 ‘ㅇ’인 경우(특히 ‘ㅏ’와 ‘ㅓ’)²⁰⁾에는 이러한 특징을 고

18. 영어철자 및 발음 기준 영자표기에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어의 음운체계를 영어의 화자에게 확인하여 표기하는 영어화자 중심 영자표기방법(영어 음운체계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 음운체계나 발음을 한국인에게 확인하여 표기하는 한국어화자 중심 영자표기방법(한국어음운체계방식)이다. 전자는 김복문(1996a, b)이 따른 방식인 반면, 본고는 후자의 방식을 따른다.

영어의 경우에는 r/ɹ의 구별이 명확하나 국어의 경우는 ‘ㄹ’ 하나로 표기된다. 반면, 국어의 경우는 폐쇄음의 경우 ‘ㄱ, ㅋ, ㆁ’, ‘ㄷ, ㅌ, ㄸ’, ‘ㅂ, ㅍ, ㅃ’의 구별이 명확하나 영어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경우 국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구별하여 표기하거나 (g/k/kk, d/t/tt, b/p/pp) 하나로 표기하되 (l) 의미상의 혼돈이 없는 경우(예로서, 김/킴, 박/팍은 Kim, Park으로 표기)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어의 음절은 국어와는 달리 모음만으로 이루어진 외자는 없고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표기는 가능하면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언어의 주체성을 살리는 동시에 시간 수 차례에 걸친 로마자표기법의 개정으로 인한 다양한 표기법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19.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같은 언어정책의 경제성은, 여러 가지 로마자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단지 글자의 수가 적은 것만을 고려하여서는 안된다. 지난 50여 년간의 기존 정부안의 표기법이 그랬듯이, 글자의 수만 적은 것을 고려하다가 제대로 된 표기법이 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개정과 재개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에 따른 학문적, 경제적, 정치적, 국론분열적인 경제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단적인 예로 이번 문관부 고시에 의한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서울 지역의 도로표지판만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302억에 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전국의 도로표지판, 관광 및 정부기관 홍보책자를 새로 제작하는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어의 영자표기시 가능한 한 철자 수가 적은 표기를 한다’는 것은 국어의 음절을 표기하는 영자표기가 두 가지 이상 가능한 경우에 그 중에서 글자의 수가 적은 것으로 표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려하여 달리 표기한다.

4.2.1 단모음

① ㅏ (해당 영어 발음: a(r)/a:)21)

| 개음절 | 폐음절 | 모음(V) | 비고 및 특이사항 |
|---|-----|-------|---------------------------------------|
| a(a) | ar | ah | 강(G/Ka(a)ng), 양(Aang), 나(Naa), 안(Ah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k, arm, art, bar, bark, car, card, carl, carp, dark, darn, far, farm, gar, garb, hard, hark, harm, harp, hart, jar, kart, lark, mar, Mark/mark, marl, marm, mart, nard, nark, par, park, part, tar, tarn, tarp, tart • baa [ba:l]/ [bæ], haaf [ha:f], maar [ma:r], Saar [za:r/ sa:r] • ah [a:], hah [ha:], Jah [dʒa/ ja:] | | | |

② ㅓ (해당 영어 발음: ʌ/ə:(r))

| ur | u | uh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ub, bud, bum, bun, bung, dub, dud, dun, dung, gum, gun, gup, gut, hub, hum, Hun, hup, hut, hutch, jut, lud, lung, mud, mug, mum, nun, nut, pub, pug, pun, pup, pus, sub, sum, sun, sung, sup, sus, tub, tug, tum, tun, tup, tut, um, un, up, us, ut • bur, cur, fur, pur, ur | | | |

③ ㅗ (o/ɔ)22)

20. 'ㅏ'와 'ㅓ'뒤에 종성자음이 'ㄴ'인 경우에는 'ah'와 'oh'로 표기하며 종성자음이 'ㅇ'인 경우에는 '아'나 '야'의 경우 'aa'나 'yaa'로 표기한다.

21. §3.4에서 지적하였듯이, 중세영어에서는 장모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모음 위에 짧은 줄 (macron)을 사용하였다가 후에 특수문자를 사용치 않기 위해 같은 모음을 두 번 사용함으로써 장모음을 표시하였다. 따라서 개음절과 /r/ 음 뒤에 나타나지 못하는 영어 /ɔ/(받침 'ㅇ')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경우에는 -aa로 표기한다. 하지만 -a로 끝나는 개음절의 경우는 항상 'a'가 /æ/로 발음되는 폐음절과는 달리 /a:/로 발음되므로 (예: ca [ka:], da [da:], fa [fa:], ha [ha:], la [la:], ma [ma:], pa [pa:], ta [ta:], va [va:]) 경제성원칙에 입각하여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는 'aa'를 'a'로 표기토록 한다.

22.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 미국영어의 경우 o가 [a]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 bob, bod, bog, bop, dog, doll, don, dot, gob, god, got, hog, hop, hot, job, John, lob, log, long, lob, mob, mod, mom, nob, nod, nog, not, od, on, op, pod, pol, pom, pop, sob, sod, sol, sop, tod, tog, Tom, top, tot), 달리 발음되는 경우도 많다(예: do [du:/dou], hon [hʌn], monk [mʌŋk], month [mʌnə], to [tu:]). 따라서 '오'를 'o'로 표기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영국영어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 | | | |
|--|------|----|----------------|
| o(h) | o(r) | oh | 온(ohn), 도(doh) |
| • born, cord, cork, corm, corn, for, forb, Ford, fork, form, fort, norm, sorb, sort, tor, torn, torr, tort | | | |

④ ㅏ (해당영어 발음: [u:/u:])

| | | | |
|--|----|-----|-------------------|
| oo | oo | woo | 웅(woong), 옥(wook) |
| boo, boob, boom, boon, boot, goo, good, gook, goon, goop, hood, hook, hoop, hoot, mood, moon, mook, moot, nook, noon, pood, pool, poon, poop, soon, soot, too, took, tool, toon, toot, woo, wood, wool | | | |

⑤ ㅣ (해당영어 발음: [i:/i:])²³⁾

| | | | |
|--|---|-----|------------------|
| ee | i | yee | 이/리(lee), 이(yee) |
| • [i:] bee, dee, gee, jee, Lee, lee, pee, see, tee • [i] bid, bill, bin, bit, chik, chill, chin, chip, chit, dib, dig, dim, din, dip, hid, hill, him, hip, hit, in, it, Jim, kid, kill, kilt, kin, king, kit, lib, lid, ling, lip, lit, mid, nib, nil, nip, nit, pig, pin, ping, pink, pip, pit, sin, sing, sip, sit, til, Tim, tin, tip, tit | | | |

⑥ ㅐ (해당영어 발음: [æ])²⁴⁾

| | | | |
|---|---|----|----------------------------------|
| ae | a | ae | 음절말 자음이 'ㄹ' 인 경우 -ae로 (예: 댈Dael) |
| ad, am, at, bam, ban, bang, bat, dab, dad, dag, dam, Dan, dan, dang, dap, gab, gad, gag, gal, gam, gang, gap, gat, had, hag, ham, hap, hat, jab, jag, jam, jang, lad, lag, lam, lap, mad, mag, man, map, mat, nag, nap, pad, pal, pan, pap, pat, sag, sal, sam, sap, tab, tad, tag, tan, tang, tap, tat | | | |

나타나지 않으며 경제성원칙에 의해 폐음절의 경우에는 'o'도 허용토록 한다. 하지만 'do, to, nor, or'등의 발음상의 문제가 있음으로 'o'의 표기는 'oh'로 한다.

23. 영어에서 'i'는 다음처럼 다양하게 발음되지만 이는 'i'로 끝나는 개음절이거나 폐음절인 경우에도 자음자가 두 글자이상이거나 'r'이 뒤따르는 경우뿐이다 (예: bind [baɪnd], bird [bɜ:rd], fight [faɪt], find [faɪnd], fir [fɪ:r], hi [haɪ], tight [taɪt], twirl [twɜ:rl]). 따라서 음절구조가 (C)V(C) 인 한국어인 경우 (CVC 구조에서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이 되지 않으며, (CV)의 구조에는 [i]로 ee로 표기토록 한다. 성씨 '이'는 두음법칙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Lee로, '이'는 Yee로 표기한다.

24. 영어 'a'경우 뒤에 'l'이 오는 경우와 (예 all [ɔ:l], bald [bɔ:ld], balk [bɔ:rk], ball [bɔ:l], calm [ka:m], chalk [tʃɔ:k], hall [hɔ:l], slaw [slɔ:], tall [tɔ:l]) -a로 끝나는 개음절의 경우 (예: ca [ka:], da [da:], fa [fa:], ha [ha:], la [la:], ma [ma:], pa [pa:], ta [ta:], va [va:])는 기타 폐음절과는 달리 발음된다. 따라서, 영어의 어말 -a의 경우 모음의 발음이 달라진다는 특징을 살려 개음절의 경우와 음절말 자음이 'ㄹ' 인 경우는 -ae로 표기한다. 하지만 실제 지명 및 인명표기에서는 'ㅐ'의 음절말에 'ㄹ'이 나타나는 예는 없다(부록 2 참조).

| 한글 | 개음절 (CV) | 폐음절 ((C)VC) | 모음 (V) | 영어 예 및 특이사항 |
|----|-------------|----------------|-----------|---|
| ㅏ | ya(a) | yar | yah | 양(Ya(a)ng). yard, yarn, shark, sharp, yah [ja:] |
| ㅋ | yur | yu | yuh | shuck, shun, shut, yuck, yum |
| ㅠ | yo | yo | yo | yol[jou], yob, yock, yon, York, (shock, shop, shot, shorn, short) |
| ㅠ | yoo | yoo | yoo | |
| ㅙ | yae | ya | yae | yak, yam, yang, yank, yap, (shack, shad, shaft, shag, sham) |
| ㅋ | ye(h) | ye | yeh | yell, yelp, yen, yes, yet, shed |
| ㅡ | ui | ui | ui | |
| ㅘ | wa(a) | waa | waa | 왕(wa(a)ng), 왁(waak) |
| ㄱ | woh | wo(r) | woh | word, worm, work, worn, wort, sword, sworn, swot, wog, won, wop, wot |
| ㅙ | wae | wa | wae | swag, swam, swang, wag, wax, |
| ㅋ | we(h) | we | weh | web, wed, well, wen, wet, swell |
| ㄱ | wee | wi | wee | wee, wig, will, wing, wink, wit, swig, swill, swin, swing, twig, twill, twin, twit |

4.3. 영어철자 및 발음기준 자음표기

한글의 표준어의 자음은 'ㄱ ㅋ ㄴ ㄷ ㅌ ㄹ ㄴ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ㅌ ㅋ ㅍ ㅎ'의 19개이며 받침에 쓰이는 자음은 'ㄱ ㅋ ㄴ ㄷ ㅌ ㄹ ㄴ ㅁ ㅂ ㅅ ㅆ ㅇ ㅈ ㅊ ㅌ ㅋ ㅍ ㅎ'의 27자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한글의 받침소리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이고, 이들 이외의 받침은 중화되어 이들 중의 하나로 발음된다(이희승, 안병희 1994:218). 따라서 음절단위 전사법을 택하며 언어학, 또는 기계번역과 같은 전문가용이 아닌 일반인용의 로마자 표기는 초성에 쓰이는 19개의 자음은 구별할 필요가 있으나 받침의 경우에는 7개의 자음만 구별하여 표기한다.

자음의 표기는 문관부(2000)와 김복문(1996a, b)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19개나 되는 초성자음의 경우 파열음 및 마찰음 ㄱ/ㅋ, ㄷ/ㅌ, ㅂ/ㅍ, ㅈ/ㅊ 은 g/k, d/t, b/p, j/ch으로 구별하여 표기하되, 받침의 경우는 k, t, p로 표기한다. 이는 영어의 /p, t, k/가 어말에 올 때에는 약간 파열(weakly aspirated)의 변이음이며, 낱말의 어두에 오면 강한 파열(strongly aspirated)의 [p^h, t^h, k^h]의 변이음으로 나타나며, 국어의 ㅂ/ㄷ/ㄱ은 약한 파열음이며 ㅍ/ㅌ/ㅋ는 강한 파열음

인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그간의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의 잦은 교체와 오랜 기간의 외국인 위주의 표기법(특히 문교부 1984)의 사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두의 ㅂ/ㄷ/ㄱ을 p/t/k로 표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고, 연구개음인 /g/이 전설모음 /i/ 앞에서 경구개음화되는 현상²⁸⁾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음 'ㅣ' 앞과 이중모음 앞의 'ㄱ'은 'k'로 표기토록 한다.²⁹⁾ 반면 한국어의 파열음의 된소리들인 ㅃ/ㄸ/ㅌ은 영어의 경우 음절어두에서 s-뒤에 오는 /p, t, k/의 소리와 같다 (예: speak [sp'ik], steak [st'eik], skate[sk'eit]). 따라서 파열음 및 마찰음의 된소리인 ㅃ/ㄸ/ㅌ/ㅆ은 pp/tt/kk/jj로 표기한다.³⁰⁾ 31)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sh로 표기되는 경구개 치경 마찰음 /ʃ/은 국어의 음소에는 없는 소리이다. 하지만 영어의 /ʃ/ 소리는 국어의 /s/ (즉 ㅅ) 이 구개음화될 때 나는 변이음이다. 이러한 국어의 현상은 'ㅅ'이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국어의 특징을 고려하여 'ㅅ'은 문교부(1984)안처럼 s/sh로 표기하도록 하며,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는 'sh'로 표기한다.³²⁾

28. 이러한 영어의 예는 gill, gin, ginger 의 예가 있다.

29. 부록2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성명에서 사용되는 음절 중에서 ㅈ/ㅊ, ㄷ/ㅌ, ㅂ/ㅃ 의 경우는 구별된 음절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ㄱ/ㅋ의 구별된 음절은 '꽤'의 경우 하나뿐이다. 또한 국어의 행정구역, 지명 등에 사용된 음절의 경우에도 'ㅋ'의 경우는 '큰'에만 사용된다. 또한 이 경우에도 유일하게 한번만 나타난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 gy-뒤에는 항상 자음인 l, m, n, p, r, t, v 만 뒤따르지 국어의 이중모음처럼 모음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ㅋ의 경우에는 단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에서 k로 표기해도 의미상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

30. 실제 한글 성명에서 사용되는 된소리는 '쌍'과 '씨'뿐이며 기타 된소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명 및 지명에서 사용되는 된소리도 '까, 꼭, 꿩, 끝, 땅, 떡, 뚝, 싸, 쌍, 쑥, 씨, 셋' 정도이며 '쌍'을 제외하고는 사용빈도도 극히 낮다 (부록 3 참조). 따라서 된소리의 구별을 하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으며, 특히 'ㅆ'을 'jj'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일관성을 들어 된소리를 'gg, dd, bb, jj'로 표기하자는 것은 언어학자들의 이론적인 논쟁일 뿐이지 실제와 현실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31. 다른 가능성은 ㄱ, ㄷ, ㅂ, ㅆ, ㅆ을 k, t, p, s, ch으로 표기하고 의미의 혼란이 초래하여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k', t', p', s', ch'로 표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kk, tt, pp, ss, jj로 표기함으로써 영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휘를 만들므로써 발음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어깨 접이라는 특수 문자를 이용한 것이 문제 일수 있으나 이는 컴퓨터자판에서 쉽게 타자할수 있으며 이러한 된소리의 사용빈도가 극히 낮다는 점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32. 즉 '시, 신, 심'등은 'shi, shin, shim'으로 표기한다. 이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영어의 'shift, shil, shim, shin, ship, shit, shimp'를 한국인은 '시'로 표기하며 'shark, sharp'는 '샤'로, 'shuck, shun, shut'은 '셔'로, 'shock, shop, shot shorn, short'은 '쇼'

국어의 유음에는 영어 (/r, l/)와 달리 ㄹ/ ㄴ/ 이라는 하나의 음소밖에 없다. 변이음으로서의 ㄹ이 유성음 사이에 있거나 또는 낱말의 어두에 쓰이면 영어의 /r/과 비슷한 권설음 [r]이 발음된다. 따라서 한국어에도 [r]의 말소리는 있지만 이 말소리는 음소변동의 규칙에 의한 자동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한국인에게는 이 [r]이 실체가 없다 (이승환, 안승신 1998: 226). 또한 모음표기의 경우 'ㄹ'이 사용이 되고 있으므로 (§4.2.2 참조) 의미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ㄹ'은 'l'로만 표기토록 한다.³³⁾

받침에 쓰이는 자음은 27자는 중화되어 'ㄱ, ㅋ, ㆁ, ㄷ, ㅌ, ㅁ, ㅂ, ㅇ'의 7개로 발음된다. 따라서 음절단위 전사법에 따라 받침은 소리나는 대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ㄱ, ㅋ', 'ㅅ, ㅆ, ㅈ, ㅊ, ㅌ', 'ㅇ'은 각각 대표음 [k, t, p]으로 표기하고, 'ㄴ', 'ㄹ', 'ㄷ, ㅌ, ㅊ, ㅆ', 'ㅁ'은 각각 [k, n, l, p]로 표기하며, 'ㄹ, ㅁ, ㅆ'은 각각 [k, m, p] 으로 표기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한글 | 음절초 | 음절말 | 특이사항 |
|----|---------|---------------|----------|------------------------------------|
| 파열 | ㄱ, ㅋ, ㆁ | g/k k(k), k | k, k, k | 모음 'ㅣ' 앞과 이중모음 앞은 k로 표기(예: 김:Kim) |
| | ㄷ, ㅌ, ㅌ | d, t(t), t | t, t, t | |
| | ㅂ, ㅃ, ㅍ | b, p(p), p | p, p, p | |
| 파찰 | ㅈ, ㅉ, ㅊ | j, j(j), ch | t, t, t | |
| 마찰 | ㅅ, ㅆ, ㅎ | s/sh, s(s), h | t, t, t | 모음 'ㅣ'와 이중모음 앞은 sh로 표기(예: 신: Shin) |
| 비음 | ㅁ, ㄴ, ㅇ | m, n, ng | m, n, ng | |
| 유음 | ㄹ | l | l | |

5.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본고는 한글의 인명 로마자 표기법은 시대적 제 상황을 고려하

로, 'shack, shad, shaft, shag, sham'은 '새'로, 'shoe'는 '슈'로, 'shell, shelf'은 '세'로 표기한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이중모음의 경우 sh로 시작되는 표기의 경우는 y나 w를 표기하지 않는다. 단 '쉬'의 경우는 '시'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w를 생략하지 않는다.

33. 본 표기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문제중의 하나는 모음+r의 경우, 뒤에 다른 모음이 나타나는 경우 음절경계가 달라져 예상과 달리 /r/이 발음된다는 점이다 (양선기교수). 하지만 이는 'ㄹ'을 'l'로 표기함으로써 해결 할 수 있다. 국어의 영자표기의 경우 -r은 항상 음절말에만 나타나며 이를 국어의 특징으로 인식하면 오히려 음절의 경계가 더욱 분명해 지기 때문이다.

여 ‘(한)국어의 영자표기법’ 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필자제안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을 제안하였다. 이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은, 한글의 음절수는 철자단위로는 최대 11,172개(모음 21×자음 19×받침 28 (받침 없는 것 포함))이며 음운단위로는 최대 3,192개(모음 21×자음 19×받침 8 (받침 없는 것 포함))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복잡한 표기법인 것처럼 보이며, 부록 1의 로마자표기법의 비교표에서처럼 기존의 다른 표기법보다는 복잡한 듯하다 (김혜숙과 익명의 심사위원 지적).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한글의 음절글자는, 철자상으로는 2,305개 (순수한 우리말의 경우 1,548개), 발음만을 고려한 경우는 1,453개(장단을 고려해도 2,047)뿐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김홍규, 강범모 1997:123)을 고려하면 간편한 표기법이 된다. 더욱이, 일반인이 로마자로 가장 많이 접하는 성명에 사용되는 음절수는 331개 정도이며 행정구역 및 지명 등에서 추가로 사용되는 음절수 119개 (총 432개 중)를 합해도 540개정도 뿐이 되지 않는다(부록 2, 3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더 더욱 간단한 표기법이 된다. 이는 기본 글자 수가 1,800자인 한자에 비하면 훨씬 간편한 것이다. 또한,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은 국어의 받침 27자의 음절경계를 넘어선 복잡한 음운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부안이나 문관부(2000)안 보다 훨씬 간편하며 간소하다. 즉 국어의 영자 표기시 필요한 최소 300 음절에서 최대 1,500 음절을 영자로 표기하면 (부록 2처럼)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한글의 음절을 영자로 표기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복잡한 음절범위를 벗어난 음운현상과 표기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인명표기 로마자 표기법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함으로써 결론에 가름한다.

1) 성명 및 기관명 등 개인 및 회사등 정부가 아닌 일반인이 사용할 로마자 표기법의 명칭은 <(한)국어의 영자표기법>이어야 하며 영어 알파벳 26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법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2) 인명 영자표기법은 국어의 글자가 음절단위로 이루어져있음을 인식하고 1음절어 중심의 영어의 발음과 철자를 기준으로 한 음절단위 영자표기법이여야 한다.

3) 일반인이 이름과 회사명 등에서 사용되는 한글의 영자표기음절표(약 500자, 최대 1,500자)를, 기초한자 1,800자처럼, 만들어 보급하고 특히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교육을 함으로서 어려서부터 영자표기를 제대로 하도록 하여 인명의 영자표기법이 속히 통일되도록 한다. 특히 각 시, 도청 여권계, 크레딧 카드

발급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개정안에 따라 영문이름을 표기토록 법제화하며 주민등록증에 성명표기를 영자로 표기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4)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부(2000)의 새로운 표기법은 지명 및 문화재명 등을 표기하는 도로표지판 및 관광홍보용 책자 등 정부 관련 표기에 국한하여 사용토록 하여 국어의 로마자표기를 일반인용과 정부용으로 구분하여 표기토록 한다. 언어의 주체성은 우리에게 의한, 우리를 위한, 우리 식의 언어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반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랐을 때, 외국인들도 여기에 동참할 것이며 이는 곧 우리의 언어의 주체성을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복문. 1996a. 한일로마자 표기의 비교연구. 서울: 무역출판사.
 김복문. 1996b. 한글의 영어발음기준 로마자 표기법 이론과 실제. 서울: 무역출판사.
 김혜숙. 2000. “주요로마자 표기법에 입각한 한국인의 성 표기 문제점: 영어에 근거 발음 및 의미”, 사회언어학 제8권 1호: 415-443.
 김홍규, 강범모. 1997. 한글 사용빈도의 분석.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도형수. 1992. 한글의 로마자표기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문화관광부. 2000. 로마자표기 용례사전. 서울: 문화관광부 국립국립연구원
 배양서. 1979. “외래어의 한글화 및 국어의 로마자화 시안 비판”, 영어교육, 17: 117-25.
 송기중. 1988. “북한의 로마자 표기법”, 국어연구소간 국어생활, 15: 107-124.
 신경구. 1989. “한글의 로마자 삼기”,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간 어학연구, 25권 3호: 489-521.
 안호삼. 1957. “우리말 라마자 표기법에 대하여”, 영어영문학 4: 295-305.
 양병선. 1997.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영문도로 sign 연구”, 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간 인문과학연구, 제3집: 137-164.
 양병선. 2000. “국어의 영문표기 및 로마자표기에 관한 제언”, 한국번역학회간, 번역학연구, 창간호: 145-168.
 양병선. 2001. “국어의 음절단위 영자표기법”, 현대문법학회 간 현대문법연구 (준비중)
 이맹성. 1979. “문교부 제정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검토 연구”, 서울대 사대 논총, 19: 155-70.
 이상억. 198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제 종합 검토”, 외국어대 언어연구소 언어와 언어학 7: 15-48.
 이상억. 1982. “한국어 로마자 표기 ‘82’, 언어, 7권1호: 165-198.

- 이승환, 안승신. 1998. *영어음성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이현복. 1979. "로마자표기법 개정시안의 문제점", *연세대 말*, 4: 145-64.
- 이현복. 1981.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대한음성학회. 말소리*, 3: 16-24.
- 이희승, 안병희 공저. 1994. *한글 맞춤법 강의 (고친판)*. 서울: 신구문화사
- 정인섭. 1971. "한글 Romanization의 역사적 고찰", *한국의국어대학교 논문집*, 4집 273-291.
- Cooper, R. L. 1984. "Language Planning, Language Spread and Language Change" in Kennedy (1984)
- Crystal, David. 1997. *English as a Global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mes, Barbara F. (ed.). 1996. *Ethnology: Languages of the World, 13th edition*. Dallas: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Katamba, Francis. 1994. *English Word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nnedy, Chris (ed). 1984.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Educa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Kim, Chin W. 1997.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Units in Han'gul", In Young-Key Kim-Renaud, ed., *The Korean Alphabet*, 145-16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artin, Samuel E. 1968. "Korean Standardization: Problems,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Ural-Altische Jahrbucher* 40: 84-114.
- McCune, G. M. and E. O. Reichauer. 1939. "Romanization of Korean Language." *The Transaction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9: 7-8.
- Rubin, F. 1984. "Bilingual Education and Language Planning." in Kennedy (1984).
- Sampson, G. 1985. *Writing Systems: A Linguistic Approach*. London: Hutchinson.
- Scragg, D. G. 1973. *Spelling*. London: Andre Deutsch.
- Stubbs, M. 1980. *Language and Literacy: The Sociolinguistics of Reading and Writing*.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Vachek, J. 1973. *Written Language: General Problems and Problems of English*. The Hague: Mouton.

부록 1: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비교

| | 한글 | 문관부 (2000) | 김복문(1996) 개음절(폐음절) | 양병선(2000) 개음절/폐음절[특이표기] |
|---------|---------|------------|--------------------|--|
| 간모음 | ㅏ | a | ah | a(a)/ar [ah(아), ahn(안), k/ga(a)ng (강)] |
| | ㅑ | eo | ur | ur/u- [uh(어)] |
| | ㅓ | o | oh(o-) | o(h)/o(r)- [oh(오), ohn(온)] |
| | ㅜ | u | oo | oo/oo [woo (우)] |
| | ㅡ | eu | uh(u-) | eu/eu |
| | ㅣ | i | ee(i-) | ee/i- [yee(이; Lee)] |
| | ㅞ | ae | ae | ae/a- [받침이 'ㄹ'인 경우 -ae] |
| | ㅟ | e | eh(e-) | e(h)/e- [eh (예)] |
| 중모음 | ㅘ | ya | yah | ya(a)/yar [yah (야)] |
| | ㅙ | yeo | yur | yur/yu- [yuh (여)] |
| | ㅚ | yo | yoh(yo-) | yo/yo- |
| | ㅜ | yu | yoo | yoo/yoo |
| | ㅞ | yae | yae | yae/ya- |
| | ㅟ | ye | yeh(ye-) | ye(h)/ye- [yeh (예)] |
| | ㅡ | ui | ui | ui/ui |
| | ㅘ | wa | wah | wa(a)/waa [waa (와)] |
| | ㅙ | wo | woh(wo-) | woh/wo(r)- [woh (워)] |
| | ㅚ | wae | wae | wae/wa- [wae (왜)] |
| | ㅟ | we | ooeh(ooe-) | we(h)/we- [weh (웨)] |
| 자음 (과열) | ㄱ, ㅋ, ㆁ | g/k kk, k | g/k, k/kk, k | g/k (음절초/말) k(k), k |
| | ㄷ, ㅌ, ㅌ | d/t, tt, t | d/t, tt, t | d/t, t(t), t |
| | ㅂ, ㅃ, ㅍ | b/p, pp, p | b/p, pp, p | b/p, p(p), p |
| | ㅈ, ㅉ, ㅊ | j, jj, ch | j/t, tj, ch/t | j, j(j), ch |
| | ㅅ, ㅆ, ㅎ | s, ss, h | s/t, ts/t, h/t | s/sh, s(s), h |
| | ㅁ, ㄴ, ㅇ | m, n, ng | m, n, ng | m, n, ng |
| | ㄹ | l/r | r/l | l |

부록 2: 인명에 사용되는 음절의 영자표기법 (총 331개: 성 168개 포함)

(대한민국 성씨 변천사 (1992)에 수록된 285개 전체 성 중에서 본관 및 한자에 상관없이 한글표기에 의한 성의 수는 180개 (김혜숙 2000)와 2000-2001년 완주군 지역 전화번호에 수록된 21,497명의 이름을 조사한 글자 임. 180개 성씨 중 두 글자를 쓰는 '강전, 남궁, 망절, 독고, 동방, 서문, 사공, 선우, 소봉, 제갈, 황보'는 따로 표기치 않았음)

| | | | | | | | |
|----------|----------|----------|----------|----------|--------|-------------|--------|
| 가 gaa | 각 gark | 간 garn | 갈 garl | 감 garm | 갑 garp | 강 k/ga(a)ng | |
| 개 gae | 갱 gang | 거 gur | 건 gun | 걸 gul | 검 gum | 격 gyuk | |
| 견 kyun | 견 kyum | 경 kyung | 계 kye | 고 goh | 곡 gok | 곤 gon | |
| 공 gong | 곽 kwaak | 관 kwaan | 광 kwaang | 교 kyo | 구 goo | 국 ook | |
| 군 goon | 궁 goong | 곽 kwok | 권 kwon | 귀 kwee | 규 kyoo | 균 kyoon | |
| 극 geuk | 근 geun | 금 geum | 기 kee | 길 kil | 김 kim | 나 naa | |
| 낙 nark | 난 narn | 남 narm | 낭 naang | 내 nae | 너 nyur | 년 nyun | |
| 녕 nyung | 노 noh | 녹 nok | 논 norn | 농 nong | 너 noe | 능 neung | |
| 니 nee | 님 nim | 다 daa | 단 darn | 달 darl | 담 darm | 당 daang | |
| 대 dae | 덕 duk | 도 doh | 독 dok | 돈 dohn | 돌 dol | 동 dong | |
| 두 doo | 득 deuk | 등 deung | 라 laa | 락 lark | 란 larn | 람 larm | |
| 랑 laang | 래 lae | 량 nyaang | 려 lyur | 력 lyuk | 런 lyun | 렬 lyul | |
| 레 lyeh | 로 lor | 록 lok | 뢰 loe | 룡 lyo | 루 loo | 류 lyoo | |
| 를 lyool | 룡 lyoong | 룩 leuk | 리 lee | 린 lin | 림 lim | 립 lip | |
| 마 maa | 막 mark | 만 marn | 말 marl | 망 maang | 매 mae | 맹 mang | |
| 면 myun | 명 myung | 모 moh | 목 mok | 몽 mong | 묘 myo | 무 moo | |
| 묵 mook | 문 moon | 미 mee | 민 min | 박 b/park | 반 barn | 발 barl | |
| 방 baang | 배 bae | 백 bak | 번 bun | 범 bum | 법 bup | 벽 byuk | |
| 변 byun | 별 byul | 병 byung | 보 boh | 복 bok | 본 bon | 봉 bong | 부 boo |
| 북 book | 분 boon | 봉 boong | 비 bee | 빈 bin | 빙 bing | 사 saa | 산 sarn |
| 삼 sarm | 상 saang | 새 sae | 생 sang | 서 sur | 석 suk | 선 sun | 설 sul |
| 섬 sum | 섭 sup | 성 sung | 세 seh | 소 soh | 손 sohn | 솔 sol | |
| 송 song | 쇄 shae | 쇠 soe | 수 soo | 숙 sook | 순 soon | 술 sool | |
| 송 soong | 승 seung | 시 see | 식 sik | 신 shin | 실 shil | 심 shim | 십 ship |
| 쌍 ssaang | 씨 ssee | 아 ah | 안 ahn | 암 arm | 애 ae | 앰 am | 앵 ang |
| 야 yah | 약 yark | 안 yarn | 양 yaang | 어 uh | 억 uk | 언 un | 얼 ul |
| 엄 um | 업 up | 여 yuh | 역 yuk | 연 yun | 열 yul | 염 yum | 엽 yup |
| 영 yung | 예 yeh | 오 oh | 옥 ork | 온 ohn | 옹 ong | 완 waan | |
| 왕 waang | 외 oe | 요 yo | 용 yong | 우 woo | 욱 wook | 운 woon | |
| 울 wool | 웅 woong | 원 won | 월 wol | 위 wee | 유 yoo | 육 yook | |
| 윤 yoon | 울 yool | 융 yoong | 은 eun | 을 eul | 음 eum | 웅 eung | 의 ui |
| 이 yee | 익 ik | 인 in | 일 il | 임 im | 입 ip | 자 jaa | 작 jark |

| | | | | | | | |
|---------|----------|---------|----------|----------|--------|---------|--------|
| 장 jaang | 재 jae | 쟁 jang | 저 jur | 적 juk | 전 jun | 짐 jum | 정 jung |
| 제 jeh | 조 joh | 죽 jok | 존 john | 중 jong | 좌 jwa | 주 joo | 죽 jook |
| 준 joon | 중 joong | 중 jeung | 지 jee | 직 jik | 진 jin | 질 jil | 집 jip |
| 징 jing | 차 chaa | 찬 charn | 찰 charl | 창 chaang | 채 chae | 책 chak | 처 chur |
| 천 chun | 철 chul | 침 chum | 칭 chung | 초 cho | 촌 chon | 총 chong | 쇠 choe |
| 추 choo | 춘 choon | 출 chool | 충 choong | 취 chwee | 치 chee | 칙 chik | 칠 chil |
| 쾌 kwae | 타 tar | 탁 tark | 탄 tarn | 태 tae | 택 tak | 통 tong | 파 paa |
| 판 parn | 팔 parl | 팽 pang | 편 pyun | 평 pyung | 포 poh | 표 pyo | |
| 풍 poong | 피 pee | 필 pil | 하 haa | 학 hark | 한 harn | 함 harm | 합 harp |
| 항 haang | 해 hae | 행 hang | 향 hyaang | 허 hur | 헌 hun | 현 hyun | 혈 hyul |
| 협 hup | 형 hyung | 혜 hye | 호 ho | 홍 hong | 화 hwa | 환 hwaan | |
| 활 hwaal | 황 hwaang | 회 hoe | 횡 hoeng | 효 hyo | 후 hoo | 훈 hoon | |
| 휘 hwee | 휴 hyoo | 흑 heuk | 흥 heung | 회 hee | | | |

부록 3 행정구역명, 자연지명, 교통관련 지명에 사용된 음절 및 사용빈도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로마자표기용례사전의 색인에 표기된 7331개 명소(한글 찾아보기)에서 사용된 음절 (총 432개로서 인명과 중복된 음절은 생략한 119개 음절)

갓 2 객 1 거 44 게 1 곳 3 곶 5 과 17 껌 1 괴 18 굴 5 굽 1 굿 3 굴 2 글 1
 까 1 꼭 1 꿩 1 끝 1 날 1 납 4 냉 4 네 1 늘 10 누 4 눌 2 뉴 1 늑 1 닷 13
 댕 1 된 1 득 2 둔 20 드 1 들 2 땅 1 떡 2 똑 2 랜 1 령 1 레 1 럽 1 령 32
 른 2 룡 3 룩 1 룬 10 룰 2 룬 50 맥 1 머 2 먹 1 멀 3 못 2 물 15 밀 6 밋 1
 바 6 밥 2 뱀 1 버 3 벌 9 뷔 1 불 9 빌 1 빔 1 삭 1 살 9 삼 4 살 1 색 6 속 10
 솟 1 스 1 슬 1 싸 1 썩 1 셋 1 알 1 압 15 앙 22 앞 2 울 2 음 1 용 4 와 9
 예 2 욱 2 윗 1 읍 12 잔 4 잠 19 적 23 절 7 접 2 줄 4 참 1 칩 17 침 2 축 4
 축 8 춤 3 측 1 층 7 침 4 큰 1 탄 33 탈 8 탑 16 탕 3 터 1 토 21 툄 1 투 2
 특 1 티 2 패 5 품 2 피 2 홀 2

560-759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

전주대학교 언어문화학부 영미언어문화전공

E-mail: bsyang@www.jeonju.ac.kr

Fax: +82-603-224-9920